



# 차례

Contents

<b>이슈와 진단</b>	02
• 중국내 한중산업단지의 설치 동향	03
<b>중국 지역별 정책 동향</b>	25
• 수도지구 순환고속도로 개통	26
• 랴오닝성, “13차 5개년계획(2016-2020)” 실시	27
• 장쑤성, “13차 5개년계획(2016-2020)” 실시	29
• 헤이룽장성, 유전자 변형 농작물 금지	31
• 산둥성 원딩, 서양인삼 기지 구축	32
<b>현대중국의 이해</b>	35
• 시안사변과 제2차 국공합작	36
<b>총칭중국포럼 소식</b>	48
• 제16회 : 중국의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환황해권 항만의 대응전략	49
<b>발간목록</b>	54

이슈와 진단

# 중국내 한중산업단지의 설치 동향

박인성 · 비웨이닝(畢衛寧)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

## 중국내 한중산업단지의 설치 동향

### 1. 한중산업단지 설치 배경과 목적

- 한중, 중한 산업단지는 한국과 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서 양국 정부가 각각 지정하는 산업단지로 다양한 정책적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에서는 새만금지구가 선정되었고, 중국은 산둥성(山東省) 옌타이시(煙臺市), 장쑤성(江蘇省) 옌청시(鹽城市)와 광둥성(廣東省) 후이저우시(惠州市)가 선정됐다.  
2014년 7월, 박근혜-시진핑(習近平) 한중 정상회담에서 선도사업으로 한중, 중한 산업경협단지를 시범적으로 조성·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양국 간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2015년 6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적으로 체결된 뒤 양국의 산업협력의 상징으로 한중, 중한 산업단지 설치·운영 추진이 가속화 되었다.  
협정에 근거해 양국 간 산업을 연계하고 상호 투자를 촉진시키며 양국 간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산업의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협력모델을 창출하고자 한다.
-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의 무역액이 대폭 증가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에 근거하면, 1992년 한중 양국 간 무역액은 약 63.8억 달러에 불과했는데 2015년 2273.8억 달러로 2200억 달러 선을 돌파, 24년 동안 약 34배 성장했다.  
2015년 기준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1371.4억 달러와 902.4억 달러였고 한국의 대(對)중국 무역흑자 규모는 469억 달러에 달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입

대상국이자 최대 무역시장이다.

2015년 12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라 양국 간의 교역액은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6년 12월 20일자 한중 자유무역협정 발효 1주년 통계자료를 보면,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과 수입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0.9%와 4.8% 감소했고 양국 간 무역액은 8.5% 감소했다. 중국 내수시장 부진과 경제성장력 둔화, 한중 양국 간 사드배치문제 등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한중 자유무역협정 효과가 아직도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하에서 혜택품목의 대(對)중국 수출 감소폭이 4%에 불과했고 자유무역협정이 대(對)중국 수출의 기동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對)중국 수출량에서 전년대비 11.4% 증가했으며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제품의 점유율이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 중 수산물과 섬유제품의 수출량은 큰 폭으로 증가했고 각각 24.9%과 17.1%에 달했다. 농산품도 2.8% 증가했다. 수출 시 한중자유무역협정 활용률은 2015년 12월 8.2%에서 2016년 11월 38.3%로 증가했으며 5년차 한국-아세안 무역협정 수출시 활용률(33.1%)보다 빠르게 상승한 것이다. 대(對)중국 수입품목 중에서 공산품, 농산품, 보일러와 귀금속제품은 각각 5.9%, 2.1%, 49%와 5.5% 감소했고 한중자유무역협정 발효로 피해를 우려했던 약세산업분야의 수입량은 오히려 감소했다.

- 이번 호에서는, 중국내 한중산업단지의 설치·운영 동향을 조사, 정리하고, 향후 한중 자유무역협정 틀 안에서 발전 및 협력 방안을 모색, 정리해 보았다.

## II. 중국내 한중산업단지의 설치·운영 동향

### 1. 산둥성 옌타이시 한중산업단지

#### 가) 옌타이시 현황

- 옌타이시는 산둥성 지급(地級)시로서 산둥반도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다. 동부는 웨이하이시(威海市), 서부는 웨이팡시(濰坊市)과 칭다오시(靑島市), 북부는 발해(渤海),

남부는 황해(黃海)를 접하고 요동반도 다리엔시(大連市)와 마주보고 있다.



〈그림 1〉 엔타이시 위치도

출처: 구글맵스

- 엔타이시의 지역 총면적은 약 1.4만km<sup>2</sup>이고 해안선 길이 약 909km이다. 2015년 기준 총인구 약 701만명 이었다.

엔타이(煙台)란 지명은 명나라 시대 왜구(倭寇)를 방비하기 위해서 연태산(煙台山)에 포대를 설치한 데에서 유래됐다.

행정구역은 4개 시할구(市轄區), 7개 현급시(縣級市), 1개 현(縣)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즈푸구(芝罘區), 라이산구(萊山區), 무핑구(牟平區), 푸산구(福山區) 4개 시할구(市轄區), 치샤시(棲霞市), 하이양시(海陽市), 라이양시(萊陽市), 자오위안시(招遠市), 라이저우시(萊州市), 룡커우시(龍口市), 평라이시(蓬萊市) 7개 현급시(縣級市), 그리고 창다오현(長島縣)이다.

1983년 11월 엔타이시는 직급지구에서 지급시로 격상됐고 1987년 6월에 현급시인 웨이하이시(威海市)가 지급시로 승격되면서 원 엔타이시 소속 원딩현(文登縣), 루산현(乳山縣), 룡청현(榮成縣)이 웨이하이시에 귀속되었고, 1994년 이후에 4개 시할구, 7개 현급시와 1개 현으로 행정구역이 조정되었다.

- 옌타이시는 환발해경제권(環渤海經濟圈)내의 중요한 거점 도시이고 산둥반도남색경제구(山東半島藍色經濟區)의 핵심도시 중 하나이며, 14개 연해개방도시 중 하나이다. 또한, 아시아 유일한 국제포도·포도주 도시이며 “일대일로(一帶一路)”국가 전략의 중점 항구도시이다.

## ■ 경제사회 현황

- 옌타이시의 2015년 지역총생산은 약 6446.1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8.4% 증가했다. 경제규모는 칭다오시(靑島市)에 이어 산둥성에서 2위이고 중국 전국 도시 순위 중 20위를 차지하고 있다. 산둥성내 비중은 10.2%에 달했다. 1인당 지역총생산은 약 9.2만 위안(1.5만 달러)으로 전년대비 8.2% 증가했다. 산둥성 평균수준(6.4만 위안)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성내(省內) 17개 지급시 중 5위이다. 1차산업은 440.9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4.3% 증가했고, 2차산업은 3323.5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7.9% 증가했고, 3차산업은 2681.8억 위안으로 9.8% 증가했다. 산업별 비중은 2차산업(51.6%), 3차산업(41.6%), 1차산업(6.8%)순이다.
- 옌타이시 규모이상 공업증가치는 약 2995.8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7.8%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전자설비 제조업, 자동차제조업, 비철금속 제련과 압연 가공업, 농부(農副)식품가공업, 전용설비제조업, 화학제품제조업은 각각 10.4%, 10%, 13.4%, 10.6%, 4.1%, 15.3% 증가했다. 규모이상 공업 전략적 신흥산업 생산액은 3461.6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1.5% 증가했고 규모이상 공업 생산액의 22.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 신세대 정보기술산업, 바이오산업, 첨단장비제조업, 신에너지산업, 신소재산업, 신에너지자동차산업의 생산액은 각각 453.3억 위안, 1491.5억 위안, 215.4억 위안, 271.9억 위안, 55.1억 위안, 966.6억 위안, 7.7억 위안이었다.
- 옌타이시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약 2.7만 위안으로 전년대비 8.5% 증가했다. 도농별로 보면, 도시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약 3.6만 위안으로 전년대비 8.5% 증가했고 농촌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약 1.1만 위안으로 전년대비 8.9% 증가했다.

■ 교통시설 현황

- 2015년 옌타이시의 도로 총연장은 약 1.9만km 이고 이 중 고속도로는 517.7km 이다. 역내 선하이(沈海: 선양-하이구)고속도로, 룡우(榮烏: 룡청-우하이)고속도로, 칭웨이(靑威: 칭다오-웨이하이)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교통망이 구축되어 있다.
- 2015년 5월 개통된 옌타이시 평라이(蓬萊)공항은 이미 서울, 부산, 오사카, 타이베이, 홍콩, 베이징, 상하이, 선양, 광저우 등 국내외 도시의 50여개 항공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 여객 운송량은 약 425만/회로 전년대비 1.4% 감소했다. 중국 지역별 공항 여객 운송량 순위 중 4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전에 운영됐던 라이산(萊山)공항은 2015년부터 폐쇄되었다.
- 2016년 11월 칭룽(靑榮: 칭다오-룡청)고속철도가 전 구간 개통·운영됐고 옌타이시 구간 고속철도노선이 전국 주요간선과 연결되었다. 옌타이역을 통해서 베이징, 상하이, 지난, 텐진, 칭다오 등 전국 주요 도시로 고속열차를 타고 직통할 수 있다. 그리고 발해만(渤海灣) 해저 터널(옌타이-따리엔) 프로젝트는 이미 국가 교통계획에 편입되어 준공된다면 옌타이부터 따리엔까지 1시간 내외로 걸릴 전망이다.
- 옌타이시는 옌타이항을 비롯한 10개 항구가 있다. 옌타이항은 중국 10대 항구 중 하나이고 세계 70여개 국가의 100여 개 항구와 직통 항로가 있다. 옌타이시 항구 선석수는 약 170개이고 이 중 만톤급 이상 선석은 약 64개이다.

〈표 1〉 옌타이시 현황

구분	내용
위치	산둥반도 동북부
총면적	1.4만㎢
인구(2015)	701만명
행정구역	4개 시할구, 7개 현급시, 1개 현
지역총생산(2015)	6446.1억 위안
1인당 지역총생산(2015)	9.2만 위안(약 1.5만 달러)
규모이상 기업증가치(2015)	2995.8억 위안
1인당 가처분소득(2015)	2.7만 위안
가치역	옌타이역, 옌타이난(煙台南)역 등
공항	옌타이 평라이공항
항구	옌타이항 등

출처: 百度百科

## 나) 옌타이시 한중산업단지 동향

### ■ 공간구조계획

- 옌타이시 한중산업단지는 옌타이시의 양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1원 3구(一園三區)”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단지 계획 면적은 398km<sup>2</sup>이고 초기에는 32km<sup>2</sup>의 토지만 조성되었다. “1원(園)”은 한중산 선진이고 “3구(區)”는 제조산업구, 현대물류구와 현대서비스업집결구를 의미한다.

제조산업구는 옌타이경제기술개발구(煙台經濟技術開發區)와 옌타이첨단기술산업개발구(煙台高新技術產業開發區)에 의탁하며 첨단장비제조업, 신에너지와 에너지 절약·환경보호산업, 전자정보업, 해양공학 및 기술 등 첨단기술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한중 신에너지자동차단지, 한중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단지, 한중스마트산업단지, 한중해양장비산업단지 등 특색 단지를 집중적으로 구축한다.

현대물류구는 옌타이보세항구(煙台保稅港區), 옌타이평라이공항, 옌타이항 서항구(西港區)에 의탁해 상무(商貿)물류업, 국제전자상거래산업 등 신흥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옌타이국제종합물류단지, 국제전자상거래산업단지 등 특색 단지를 집중적으로 구축한다.

현대서비스업집결구는 옌타이동부해양경제신구(煙台東部海洋經濟新區)에 의탁하면서 의료건강산업, 실버산업, 금융보험업, 문화창조업, 관광레저산업 등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한중생명과학산업단지, 한중문화산업단지 등 특색 단지를 구축한다.



〈그림 2〉 한중(옌타이)산업단지 계획도

자료: 百度圖片

## ■ 7대 협력육성산업

### ● ‘인터넷+’ 산업

엔타이시 국가스마트시행(試行)도시로서 스마트 교통, 스마트 의료(醫療), 스마트 교육, 스마트 문화 등 분야를 포함하고 스마트도시 건설 분야에서 한국과 교류협력을 촉진시키며 중한 화안(華安)전자정보산업원의 건설을 추진한다.

### ● 스마트제조산업

“중국제조2025”전략과 연결되고 수치 제어 공작기계, 3D 프린터, 공업로봇 등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며 (주)LG전자 등 기업의 스마트 시계과 태블릿 컴퓨터 등 스마트 제품에 관한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한다.

### ● 에너지 절약·환경보호산업

태양광발전, 녹색조명, 에너지 절약 건축, 에너지정보화 등 분야를 둘러싸고 한국기업과 공동적으로 한중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단지를 조정하고 한화태양광발전소, LG화학 고흡수성 수지 등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 ● 생명과학산업

의료기계, 약품개발, 재활의료, 미용성형, 실버업 등 분야를 둘러싸고 한국의료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한중의료기계단지, 한국바이오제약단지, 한중국제의학센터 등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의료건강산업기지와 실버산업 시범 도시가 되도록 추진한다.

### ● 금융서비스업

산업투자기금, 해양재산권거래, 대중(大宗)상품거래, 소액대출, 국제인민폐결제 등 분야를 대상으로 한국의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엔타이에서 한국계 금융지점의 설립을 추진하며, 한국에서 엔타이기업의 상장·유자 등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양국 기업 간 공동적으로 한중산업투자기금의 설립을 권장하고, 역외금융업무를 발전시키며, 한국금융가(金融街)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거래 지불과 금융서비스 편리화를 목적으로 신형금융서비스 플랫폼을 조성한다.

● **물류유통산업**

한중현대물류산업단지, 한중철도물류단지, 한국상품거래센터, (주)대한통운과 공동 개발된 종합물류센터 등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 **문화창조산업**

애니메이션 디자인, 게임 개발, 영화와 텔레비전 제작, 혼수문화 등 분야를 포함해 한중창조인재육성센터, 한중문화창조교류센터의 설립을 추진하고, 대한국문화상품의 전시센터, 체험센터, 거래센터를 구축하고, 옌타이·부천 문화산업 시범단지, 한중 저작권 대리 거래센터, 한국애니메이션기지 등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2. 장쑤성 옌청시 한중산업단지

가) 옌청시 현황

- 옌청시는 장쑤성에서 가장 큰 지급(地級)시로서 장쑤성의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다. 북부는 련윈강시(連雲港市), 서부는 양저우시(揚州市)과 화이안시(淮安市), 남부는 난통시(南通市)와 타이저우시(泰州市), 동부는 황해(黃海)와 접하고 한국 제주도과 마주보고 있다.



〈그림 3〉 옌청시 위치도

출처: 구글맵스

- 연청시 총면적은 약 1.7만km<sup>2</sup>이고 장쑤성 총면적의 13.9%를 차지한다. 해안선 길이는 약 582km이고 장쑤성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총인구는 약 723만 명 이었다.

행정구역은 3개 시할구, 1개 현급시와 5개 현을 포함하고 있다. 3개 시할구(市轄區)는 퉁후구(亭湖區), 옌두구(鹽都區), 따핑구(大豐區)이고, 1개 현급시(縣級市)는 동타이시(東台市)이고, 5개 현(縣)은 쟈후현(建湖縣), 서양현(射陽縣), 푸닝현(阜寧縣), 빈하이현(濱海縣)과 상수이현(響水縣)으로 구성되고 있다.

1983년에 연청시는 직급지구에서 지급시로 격상됐고 2개 시할구와 7개 현을 포함한다. 2015년에 따핑시는 따핑구로 명칭을 변경했고 3개 시할구, 1개 현급시와 5개 현의 행정구역이 조정된 것이다.

- 연청시는 지대가 평평하고 수로가 뾰뾰하게 분포하고 산물이 풍족한 지역으로서 “어미지향(魚米之鄉: 물고기와 쌀이 많이 나는 곳)이라고 부른다. 연청시는 장쑤성 연해지역 신흥 공 상업(工商業) 도시이고 장강삼각주의 중요한 지역핵심도시이다.

## ■ 경제사회 현황

- 연청시의 2015년 지역총생산은 약 4212.5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0.5% 증가했다. 경제규모는 장쑤성 13개 지급행정구역에서 7위이고 중국 전국 도시 순위 중 41위를 차지하고 있다. 장쑤성 지역총생산의 비중은 6%에 달했다. 1인당 지역총생산은 약 5.8만 위안(0.9만 달러)이었다. 장쑤성 평균수준(8.8만 위안)에 비하면 아주 낮은 수준이고, 성내(省内) 13개 지급시 중 10위이다.

1차산업은 516.5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3.6% 증가했고, 2차산업은 1925.5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0.5% 증가했고, 3차산업은 1772.5억 위안으로 12.5% 증가했다. 산업별 비중은 2차산업(45.7%), 3차산업(42.1%), 1차산업(12.2%)순이다.

- 연청시 규모이상 공업증가치는 약 2061.3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1.5% 증가했다. 이 중 경공업과 중공업은 각각 전년대비 11.3%와 11.6% 증가했다. 민영기업 증가는 1466.8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3.8% 증가했고 규모이상 공업증가치 비중의 71.6%를 차지하고 있다.

- 연청시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약 2.2만 위안으로 전년대비 9.1% 증가했다. 도농별로 보면, 도시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약 2.8만 위안으로 전년대비 9.1% 증가했고 농촌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약 1.6만 위안으로 전년대비 9.3% 증가했다.

### ■ 교통시설 현황

- 2015년 연청시의 도로 총연장은 약 2.0만km 이고 이 중 고속도로는 359km 이다. 역내 선하이(沈海: 선양-하이구)고속도로, 연징(鹽靖: 연청-징장)고속도로, 연뤄(鹽洛: 연청-뤄양)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교통망을 구축했고 모든 현급행정지역에 고속도로 개통(縣縣通高速)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
- 2000년 3월 개통된 연청시 난양(南洋)공항은 시내에서 8.3km 떨어진 퉁후구 난양진(南洋鎮)에 위치하고 이미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우한, 하얼빈, 선양, 타이베이, 홍콩, 서울, 오사카 등 국내외 도시의 22개 항공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 여객 운송량은 약 85.2만/회로 전년대비 59.7% 증가했다.
- 연청시는 푸닝역, 쯐후역, 연청역, 따핑역, 동타이역 등 5개 기차역을 운영하고 있다. 역내 신창(新長: 신시-창싱)철도를 보유하고 있고 련연(連鹽: 련원강-연청)철도와 옌닝(鹽寧: 연청-난징)고속철도가 2015년에 착공되어 2019년에 개통 예정이다.
- 연청항은 장쑤성 중부 연해지대 중심항구이고 장강삼각지구의 컨테이너 항구 중 하나이다. 연청항은 주로 따핑항구, 서양항구, 빈하이항구, 상수이항구 등 4개 항구를 포함한다. 주로 잡화품, 석유화학제품과 컨테이너 운송을 위주로 한다.

〈표 2〉 연청시 현황

구분	내용
위치	장쑤성 동북부
총면적	1.7만km <sup>2</sup>
인구(2015)	723만명
행정구역	3개 시할구, 1개 현급시, 5개 현
지역총생산(2015)	4212.5억 위안
1인당 지역총생산(2015)	5.8만 위안(약 0.9만 달러)
규모이상 기업증가치(2015)	2061.3억 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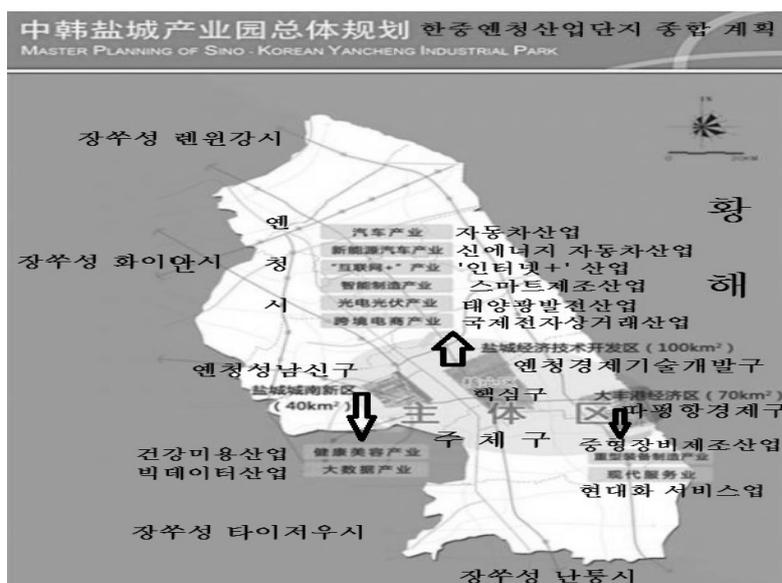
1인당 가처분소득(2015)	2.2만 위안
기차역	엔청역, 동타이역, 따평역 등
공항	엔청 난양공항
항구	엔청항 등

출처: 百度百科

## 나) 엔청시 한중산업단지 동향

### ■ 공간구조계획

- 엔청시 한중산업단지는 ‘1원(園) 3구(區)’로 구분되며 ‘1원(園)’은 한중(엔청)산업단지이고 ‘3구(區)’는 핵심구, 주체구, 연동구이다. 핵심구는 국가급 엔청경제기술개발구이며 주체구는 국가급 엔청경제기술개발구, 성남신구(城南新區)와 따평항(大丰港)경제구이다. 또한, 연동구(聯動區)는 엔청 시역(市域)의 10개 성급(省級) 이상 개발구 등을 포함한다. 핵심구 계획면적은 210km<sup>2</sup>이고 이 가운데 엔청경제기술개발구, 성남신구와 따평경제구는 각각 100km<sup>2</sup>, 40km<sup>2</sup>와 70km<sup>2</sup>이다. 엔청경제기술개발구는 자동차산업, 신에너지 자동차산업, ‘인터넷+’산업, 스마트제조산업, 태양광발전산업, 국제전자상거래산업 등 산업을 중점적으로 구축한다. 성남신구는 건강미용산업, 빅데이터산업 등 산업을 중점으로 구축한다. 따평경제구는 중형장비제조산업, 현대화 서비스업 등 산업을 중점으로 구축한다



〈그림 4〉 한중(엔청)산업단지 계획도

자료: 百度圖片

## ■ 10대 협력육성산업

### ● 자동차산업

이미 (주)기아, (주)현대모비스, 국제자동차시험장 등 자동차 산업 체인을 형성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자동차 산업의 생산액 목표는 3천억 위안으로, 중국 국내 자동차 산업체인중 가장 완벽한 산업기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 신에너지 자동차산업

장강삼각주 신에너지 자동차 연구원(長三角新能源汽車研究院)을 플랫폼으로 해 기아자동차 등의 신에너지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하고, 광범위한 기술협력을 펼치며, 자주적 지식소유권, 경량화(輕量化), 순수 전기 핵심기술의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체인을 육성하고자 한다.

### ● '인터넷+' 산업

한국의 ICT(정보통신) 등 미래 과학기술분야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클라우드 소싱(眾包), 클라우드 펀딩(眾籌) 등 신형 제도모델의 발전과 공업, 상업·무역업, 금융업 등 산업의 융합을 추진한다.

### ● 스마트장비 제조산업

“중국제조2025”, “한국 제조업 혁신 3.0” 등의 전략 기회를 잘 파악하고, 원격의료설비, 특수로봇, 공업용 로봇, 서비스업 로봇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며 스마트 제조플랫폼 장비, 스마트 장비, 스마트 제어계측장치와 부품 등 3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킨다.

### ● 태양광발전산업

광에너지(光能源), 광모니터(光顯示), 광조명(光照明) 등 3대 분야를 둘러싸고 세계적인 기업과 협력하며, 비교적 완비된 태양광 발전, LED조명산업 체인과 광모니터 산업 클러스터(集群)를 형성한다.

### ● 국제전자상거래산업

엔칭종합보세구의 강점을 발휘하고 한국 (주)롯데 등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중국 전국에서 선도적인 지역 상무(商貿)물류센터, 전자 상거래와 현대화 물류산업 융합 발전의 핵심

집결구를 수립하고자 한다.

- **건강미용산업**

국제미용건강센터를 계획하고 건설하며 한국(주)GCT 등 회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미용·엔칭 브랜드(韓國美容·鹽城品牌)”창조에 집중한다.

- **빅데이터산업**

10만㎡의 빅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대용량 녹색데이터 센터, 중점산업 빅데이터 응용산업기지, 빅데이터 혁신 창업 육성기지를 수립한다.

- **현대화 서비스업**

자동차 서비스업의 육성을 둘러싸고 8개 자동차 서비스업 센터를 만들며 임항(臨港) 물류업, 첨단서비스업, 관광업, 문화혁신산업을 발전시킨다.

- **중형(重型) 첨단장비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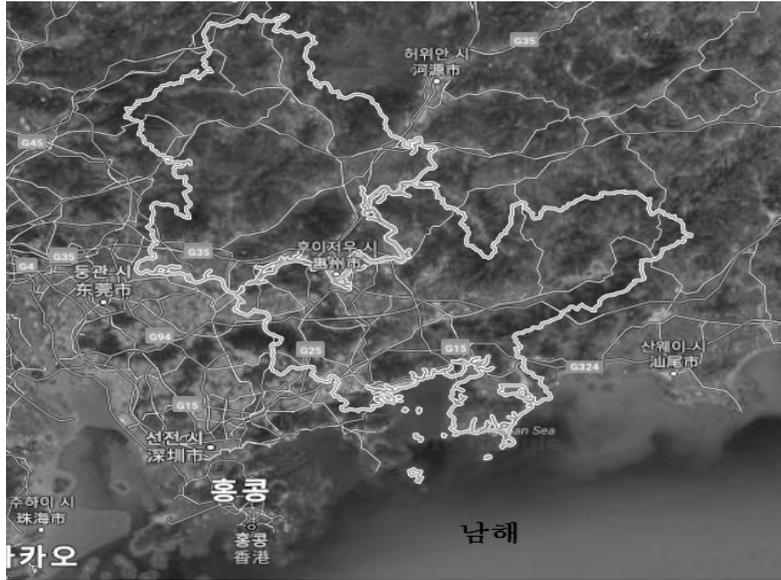
신에너지 풍력발전장비, 항만기계, 야금장비 등을 비롯한 중형 첨단장비 제조업을 발전시키고 중형장비의 연구, 생산, 제조 기지를 적극 건설한다.

### 3. 광둥성 후이저우시 한중산업단지

#### 가) 후이저우시 현황

- 후이저우시는 광둥성의 중남부, 주강삼각주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다. 북부는 허위안(河源市), 남부는 동관시(東莞市)와 선전시(深圳市), 동부는 산웨이시(汕尾市), 서부는 광저우시(廣州市)에 접하는 도시이다. 남해와 접하고 있는 후이저우시는 주요한 객가인(客家人)<sup>1)</sup> 거주지역 중 하나이고 해외 객가인의 고향이라고 부른다.

1) 진(晉)나라 시대부터 원(元)나라 시대까지 중원(中原)지역에서 점차 남부로 이주한 한인(漢人)을 가리킨다.



〈그림 5〉 후이저우시 위치도

출처: 구글맵스

- 후이저우시 총면적은 약 1.6만km<sup>2</sup>이고 광동성 총면적의 8.8%, 주강삼각주 총면적의 25%를 차지한다. 해안선 길이는 약 224km이고 광동성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총인구는 약 475.6만 명 이었다.

행정구역은 2개 시할구와 3개 현을 포함하고 있다. 2개 시할구(市轄區)는 후이청구(惠城區), 후이양구(惠陽區)이고, 3개 현(縣)은 보뤄현(博羅縣), 후이동현(惠東縣), 룡먼현(龍門縣)으로 구성하고 있다.

1988년에 후이저우지구는 후이저우시, 동관시, 허위안시와 산웨이시 등 4개 지급시를 설립했고, 후이저우시는 1개 시할구와 4개 현으로 구성된다. 2003년 후이양시는 후이양구로 행정구역을 바꾼 뒤에 2개 시할구, 3개 현으로 되었다.

- 후이저우시는 국가 역사적·문화적 유명도시이고, 옛날부터 광동 동부지역의 중심 도시이며 동강(東江)지역의 정치·문화·경제·군사 중심지이고 월동(粵東)지역의 관문(門戶)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 경제사회 현황

- 후이저우시의 2015년 지역총생산은 약 314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9% 증가했다.

경제규모는 광둥성 21개 지급행정구역에서 5위이고 중국 전국 도시 순위 중 62위를 차지하고 있다. 광둥성 지역총생산의 비중은 4.1%에 달했다. 1인당 지역총생산은 약 6.6만 위안(1.1만 달러)이었다. 광둥성 평균수준(6.8만 위안)에 비하면 비슷한 수준이고, 성내(省内) 21개 지급시 중 7위이다.

1차산업은 150.9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했고, 2차산업은 1726.7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9.6% 증가했고, 3차산업은 1262.5억 위안으로 8.6% 증가했다. 산업별 비중은 2차산업(55%), 3차산업(40.2%), 1차산업(4.8%)순이다.

- 후이저우시 규모이상 공업증가치는 약 1588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했다. 업종별 보면, 전자업은 634.6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6.8% 증가했고, 석유화학업은 192.1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5.9% 하락했고, 자동차업은 96.6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4.3% 증가했다. 첨단기술제조업의 증가치는 규모이상 공업증가치의 43.6%를 차지하고 있었다.
- 후이저우시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약 2.5만 위안으로 전년대비 10.1% 증가했다. 도농별로 보면, 도시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약 3만 위안으로 전년대비 10.1% 증가했고 농촌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약 1.6만 위안으로 전년대비 10.2% 증가했다.

## ■ 교통시설 현황

- 2015년 후이저우시의 도로 총연장은 약 1.3만km 이고 이 중 고속도로는 588km 이다. 역내 선하이(沈海: 선양-하이구)고속도로, 지광(濟廣: 지난-광저우)고속도로, 창선(長深: 창춘-선진)고속도로 등 8개 고속도로가 연결된 교통망을 구축했고 “7횡5종1연(七橫五縱一聯)”의 고속도로망을 형성하고 있다.
- 2015년 2월 운항을 재개한 후이저우시 핑탄(平潭)공항은 시내에서 20km 떨어진 후이양구 핑탄진에 위치하고 있다. 이미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시안, 하이커우, 충칭, 쿤밍 등 국내 도시의 12개 항공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2016년 11월 기준 여객 운송량은 약 50만/회였다.

- 후이저우 역내 철도 총연장은 149.4km이고 후이저우역, 후이저우동역, 후이저우난역, 후이저우베이역 등 기차역을 보유하고 있다. 역내 샤선(厦深: 샤문-선전)고속철도, 징주(京九: 베이징-홍콩)철도, 가 운영되고 있고 련연(連鹽: 련원강-옌청)철도와 광산(廣汕: 광저우-산터우)고속철도, 간선(贛深: 간주-선진)고속철도가 2015년에 착공되어 2019년에 개통 예정이다.
- 후이저우항은 국가 1급 항구로서 홍콩까지 47해리에 위치해 있다. 후이저우항은 해항과 강항으로 구분한다. 해항은 3개 항구이고 강항은 11개 작업구역을 뜻한다. 연해항구 선석은 약 36개가 있는데, 이 중 30만톤급, 15만톤급, 1만톤급 이상 선석은 각각 2개, 2개와 13개가 있다.

〈표 3〉 후이저우시 현황

구분	내용
위치	주강삼각주 동북부
총면적	1.6만km <sup>2</sup>
인구(2015)	476만명
행정구역	2개 시할구, 2개 현
지역총생산(2015)	3140억 위안
1인당 지역총생산(2015)	6.6만 위안(약 1.1만 달러)
규모이상 고업증가치(2015)	1588억 위안
1인당 가처분소득(2015)	2.5만 위안
기차역	후이저우역, 후이저우동역 등
공항	후이저우 핑탄공항
항구	후이저우항 등

출처: 百度百科

## 나) 후이저우시 한중산업단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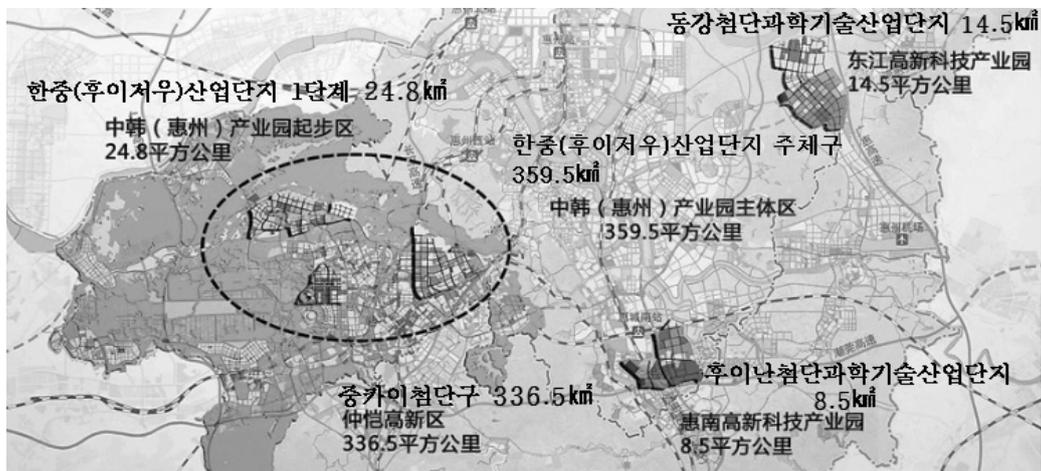
### ■ 공간구조계획

- 후이저우시 한중산업단지는 ‘1원(園) 2플랫폼(平台) 다구역(多區)’로 구분되며 ‘1원’은 한중(후이저우)산업단지이고 ‘2플랫폼’은 환다야완신구(環大亞灣新區)와 중카이국가급첨단기술개발구(仲愷高新區)를 포함한다. 다구역은 주로 주삼각국가자

주혁신시범구(珠三角國家自主創新示範區), 중카이국가급첨단기술개발구의 첨단 제조집결구(高端製造集中區), 퉁후생태스마트구(潼湖生態智慧區)의 혁신과 본부 경제구(創新和總部經濟區), 한중과학기술협력구, 다아완화학공업협력구(大亞灣化學工業合作區), 양항종합보세구(兩港綜合保稅區) 등 구역을 포함한다. 계획면적은 359.5km<sup>2</sup>이고 이 가운데 중카이첨단기술개발구, 후이난첨단과학기술단지과 동강첨단과학기술단지는 각각 336.5km<sup>2</sup>, 8.5km<sup>2</sup>, 14.5km<sup>2</sup>이다. 초기 한중산업단지는 24.8km<sup>2</sup> 이었다.

다아완(大亞灣)신구는 다아완석유화학단지를 바탕으로 석유화학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후이저우공항, 후이저우항을 바탕으로 공항경제구, 항만경제구, 현대물류단지를 건설하며, 해양자원 우세를 바탕으로 유람선관광, 과학기술금융, 문화창조 등 산업을 크게 발전시킨다.

중카이(仲愷)첨단기술개발구는 주삼각국가자주혁신시범구를 바탕으로 한국계 기업을 집결시키고 한국과 과학기술협력을 심화하고, 퉁후과학기술혁신창조단지, 한중산업단지를 계획·건설하고, 평판 디스플레이, 무선인터넷, 신에너지와 클라우드 컴퓨팅, 현대장비제조업 등 산업을 발전시킨다.



〈그림 6〉 한중(후이저우)산업단지 계획도

자료: 百度圖片

## ■ 10대 협력육성산업

### ● 선진스마트제조산업

중카이첨단기술개발구(仲愷高新區)의 스마트제조실력이 비교적 강한편이며, 한국계 기업이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다. (주)삼성, (주)LG, (주)SK가 (주)TCL, (주)화양 등 중국기업과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하여 전자통신핵심기술표준연합설립방안을 모색하고, 모니터, 칩, 센서, 통신 관련 기술의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하며, 특허권 기술을 공유하고, 국제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 단말산업 집결구를 구축한다.

### ● 화학공업

아야완(大亞灣)석유화학지구의 산업기초우세에 의거하여 SK그룹, 효성그룹, (주)롯데화학 등 한국계 유명 화학공업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석유화학산업의 고급고리와 전략적 분야의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한중기업 합작형식을 통한 단지내 화학공업 프로젝트 투자를 격려하고, 글로벌석유화학자원과 제품가격의 변동이 가져오는 리스크에 공동으로 대처한다.

### ● 자동차와 장비제조산업

한국 현대그룹 신에너지 자동차기술의 도입과 협력을 확대하고, (주)LG, (주)삼성 등 그룹의 신에너지자동차 동력 배터리의 연구·개발·제조 센터, 구동 전기, 충전설비 등 프로젝트를 도입하고, 신에너지자동차 제품분야의 신성장거점을 형성하고, 후이저우 신에너지 산업체인을 구축한다.

### ● ‘인터넷+’ 산업

반도체설계, 재료와 설비, 인터넷전송속도 등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우위를 이용하여 (주)삼성, (주)LG, (주)SK 등 통신기업을 유치하고, 연합 연구·개발 센터 설립 등을 통해서 후이저우 기업과 심도있는 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사물인터넷의 기술단계를 제고시키고, 관련 분야의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 ●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

한국의 높은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기술을 이용하여, 한화그룹 등의 기업과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고,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단지 건설을 공동으로 계획하고, 자원순환, 환경설비 등 한국이 우세산업에 대한 기술도입과 협력개발을 확대한다.

### ● 현대물류산업

후이저우공항, 후이저우항을 이용하여 공항물류단지, 항만물류단지, 현대서비업단지를 건설하고, 공항과 항만의 물류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한국 광양항과 포항항 등 한국 중요 항구와의 연결을 강화한다. 또한, 후이저우와 한국 간의 해로(海路)와 공로(空路) 직통 노선을 개통하고, 한중보세단지와 한중전자상거래단지 설립방안을 모색한다.

### ● 해양산업

한국과 후이저우 간의 해양자원 우세를 이용하여 양자 간 해양장비제조, 해양바이오, 해양어업, 해양관광, 임항(臨港)가공제조, 해양생태보호, 해수의 종합적인 이용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 한국 유명 해양자원 개발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해산물 양식, 해산물 가공, 해산물 무역, 해양바이오제약 등 산업간 협력을 추진한다.

### ● 문화창조산업

한국과 후이저우의 문화특색 우세를 발휘하고, 양자 간 문화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애니메이션 설계, 게이밍 개발, 영상콘텐츠 제작, 결혼식 문화 등 분야 프로젝트의 도입을 강화하고, 기업 간의 협력을 추진한다. 한류(韓流)문화혁신산업단지와 한국민속특색마을(韓國風情特色小鎮)의 설립방안을 모색하고, 한국 유명 핸드폰 게이밍 기업과 (주)롯데엔터테인먼트 등 영상제작기업의 입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현지 모바일 단말기와 스마트TV기업의 수직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 미용건강산업

한국 성형미용 등 산업과 기술의 우세를 발휘하고, (주)GCT, 미용건강산업발전기금, 드림메디컬그룹 등 기업의 입주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현지 기업과 프로젝트 협력을 추진하며 미용건강산업단지의 설립방안을 모색한다.

### ● 현대서비스업

한국의 은행, 증권, 보험 등 기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후이저우에서 지사 설립을 추진하고, 한국에서 후이저우기업의 상장·융자 등 활동을 지지하면서, 공동적으로 한중산업단지투자기금의 설립방안을 모색하고 역외금융업무를 발전시킨다.

### Ⅲ. 종합

- 한중—중한 자유무역협정(FTA)발효에 따라 한중 정상외교가 지방경제협력 차원에서의 양국간의 경제협력시범지구 지정 및 한중—중한 산업단지를 확대할 것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중국정부가 3개 지구에 중한산업단지를 지정함으로써 다양한 정책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 산둥성 옌타이시(煙台市)는 한국과 거리가 가까운 도시 중 하나로서 양자 간의 교류 협력이 활발하며 중한산업단지의 설립을 통해서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옌타이시는 한국 인천시, 안산시, 울산시, 군산시, 원주시 등 지역과 우호도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현재 약 5만 명의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옌타이의 최대 외국인투자국인 한국은 2015년까지 누적투자액이 55.1억 달러에 달해 대(對)중국 총투자액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옌타이의 대(對)한국 무역액은 110.8억 달러로 110억 달러 선을 돌파했고, 양국 간 총교역액의 4%를 차지한다. 한국의 대기업이 많이 진출한 옌타이시는 (주)두산, (주)LG, (주)현대자동차, (주)현대중공, (주)대우조선, (주)현대중공, (주)포스크 등 글로벌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다. 향후 한중 양자간 협력과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은, 인터넷+, 스마트제조, 생명과학, 금융서비스, 물류유통, 문화창조,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등 분야이다.
- 장쑤성(江蘇省) 옌청시(鹽城市)는 한국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고 편리한 해로(海路)와 공로(空路) 교통망을 구축하고 있다. 옌청시는 한국의 남원, 대구, 서울 성북구 등 지역과 우호도시 관계이고 현재 약 2만 명의 한국인이 옌청시에서 거주하고 있다. 옌청시는 장쑤성 한국기업 밀집구역으로서 (주)현대·기아, (주)현대모비스, (주)현대제철을 비롯한 한국기업 약 1000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총투자금액이 50억 달러를 넘었다. 한국은 옌청시의 최대 외국인투자국이자 최대 무역 파트너이다. 향후 한중 양자 간 협력과 발전 잠재력이 큰 10대 산업분야는, 자동차산업, 신에너지 자동차산업, '인터넷+'산업, 스마트 장비제조산업, 태양광발전산업, 국제전자상거래산업, 건강미용산업, 빅데이터산업, 현대화 서비스업, 중형(重型) 첨단장비 제조업이다.

- 광둥성 후이저우시(惠州市)는 주강삼각주도시군 중 하나로서 석유화학공업과 전자 정보산업이 발달했고, 중국 최초의 국가급 전자정보산업기지이며 국가의 중요 석유 화공기지이다.

개혁개방 이후 후이저우시는 한국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국 성남시 등 지역과 우호도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현재 약 4000명의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주)삼성전자, (주)LG를 비롯한 한국 대기업이 진출해있다. (주)삼성(후이저우)전자는 삼성그룹 중국지점중 최대 생산기지로 육성시킨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2015년 후이저우의 대한국 무역액은 161.8억 달러로 160억 달러 선을 돌파했고 광둥성 대 한국 무역총액의 24.9%이며, 중국 대(對)한 교역총액의 7.1%를 차지한다. 후이저우의 대외수출국 비중은 한국(32.5%), 홍콩(30.9%), 미국(13.5%), 유럽연합(7.4%) 순이다.

향후 한중 양자 간 협력과 발전가능성이 큰 산업분야는, 선진스마트제조산업, 석유화학공업, 자동차와 장비제조산업, 현대서비스업 등 분야이다.

〈표 4〉 중국내 3개 한중산업단지의 협력육성산업

한중(엔타이)산업단지	한중(연청)산업단지	한중(후이저우)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li> <li>● 스마트제조</li> <li>● 에너지 절약 · 환경보호</li> <li>● 생명과학산업</li> <li>● 금융서비스</li> <li>● 물류유통</li> <li>● 문화창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li> <li>● 신에너지 자동차</li> <li>● '인터넷+'</li> <li>● 스마트장비제조</li> <li>● 태양광발전</li> <li>● 국제전자상거래</li> <li>● 건강미용</li> <li>● 빅데이터</li> <li>● 현대화 서비스</li> <li>● 중형첨단장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진스마트제조</li> <li>● 화학공업</li> <li>● 자동차와 장비제조</li> <li>● '인터넷+'</li> <li>● 에너지 절약 · 환경보호</li> <li>● 현대물류</li> <li>● 해양</li> <li>● 문화창조</li> <li>● 미용건강</li> <li>● 현대서비스</li> </ul>

참고 문헌

- 2016.6.2. 齊魯晚報. “煙臺中韓產業園規劃總面積349平方公里位於煙臺市區兩翼”. (<http://www.qtwb.com.cn/2015/0602/394062.shtml>)
- 2015.6.8. 中國商務部. “山東煙臺中韓產業園重點打造‘一園三區’空間布局”. (<http://www.mofcom.gov.cn/article/resume/n/201506/20150601004653.shtml>)
- 2015.9.24. 江蘇省人民政府. “中韓鹽城產業園建設快速推進”. ([http://www.jiangsu.gov.cn/gzdt/201509/t20150924\\_403967.html](http://www.jiangsu.gov.cn/gzdt/201509/t20150924_403967.html)).
- 2015.12.12. 大眾網. “中韓(煙臺)產業園重點培育7大產業”. (<http://w.dzwww.com/p/291092.html>)
- 2016.3.10. 齊魯網. “中韓(煙臺)產業園具備批復條件已列入省‘十三五’規劃”. (<http://yan tai.iqilu.com/ytyaowen/2016/0310/2714587.shtml>)
- 2016.5.30. 新華網. “惠州將按‘一園多區’模式建中韓產業園”. ([http://news.xinhuanet.com/info/2016-05/30/c\\_135399185.htm](http://news.xinhuanet.com/info/2016-05/30/c_135399185.htm))
- 2016.6.6. 中國財經網. “中韓產業園韓國掀起鹽城風”. (<http://finance.china.com.cn/roll/20160606/3756185.shtml>)
- 2016.8.29. 鹽城新聞網. “中韓鹽城產業園區”. (<http://special.ycnews.cn/2016/0829/2368170.shtml>)
- 2016.11.23. 惠州信息網. “中韓(惠州)產業園將打造成匯聚韓國元素引領區”. (<http://news.hz123.com/detail-1144.html>)
- 煙臺市統計局(2016), “2015年國民經濟和社會發展統計公報”.
- 鹽城市統計局(2016), “2015年國民經濟和社會發展統計公報”.
- 惠州市統計局(2016), “2015年國民經濟和社會發展統計公報”.
- 구글맵스([www.google.co.kr/maps](http://www.google.co.kr/maps))
- 百度百科(<https://baike.baidu.com/>)
- 中韓(惠州)產業園(<http://ckip.huizhou.gov.cn/>)
- 煙臺中韓產業園(<http://www.ytckip.gov.cn/>)
- 鹽城中韓產業園(<http://www.ycckip.gov.cn/>)

# 중국 지역별 정책동향

비웨이닝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

- ▶ 1. 수도지구 순환고속도로 개통
- ▶ 2. 랴오닝성, “13차 5개년계획(2016-2020)” 실시
- ▶ 3. 장쑤성, “13차 5개년계획(2016-2020)” 실시
- ▶ 4. 헤이룽장성, 유전자 변형 농작물 금지
- ▶ 5. 산둥성 원딩, 서양인삼 기지 구축

## 중국 지역별 정책동향

### 1. 수도지구 순환고속도로 개통

- 2016년 12월 6일 오후에 베이징시 미원구-허베이성 쥘저우시 간 미쥬(密涿)고속도로 허베이성 구간이 개통됐다. “수도지구 순환고속도로(首都地區環線高速)”는 허베이성 전구간이 연결되어 주변 지역과의 협동발전전략과 징진지(京津冀)교통일체화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그림 1〉 수도지구 순환고속도로 안내도

자료: 新華網

- “수도지구 순환고속도로”는 “베이징시 제7 순환도로(七环)”라고도 부른다. 중국 국가고속도로망계획에 근거한 “수도지구 순환고속도로” 총연장은 약 942km이고, 이 중 허베이성 구간이 약 850km 이고 12개 구간 고속도로로 구성되며 허베이성 청더시(承德市)–베이징시 창핑구(昌平区) 간의 청핑(承平)고속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이 모두 준공·개통됐다. “수도지구 순환고속도로”가 완공되면 허베이성과 텐진부터 베이징까지 한 시간 교통권을 형성하게 된다.
- 중국 교통운송부는 조속한 연결과 개통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부구간에서는 대체노선을 통해 수도지구 순환 고속도로 역할을 담당토록 한다고 했다. 즉, 허베이성 구간내 창선고속(長深高速: 창춘–선전)과 징하고속(京哈高速: 베이징–하얼빈)의 노선이 청핑고속도로를 대신하여 수도지구 순환고속도로를 형성할 것이다.
- 베이징시는 오랫동안 화북지역의 교통요지로서 서북지역의 화물이 동부 연해지구로 나가는 통로이면서 동북지역과 중남지역·서남지역 화물 유통의 중요한 교통허브 중 하나이다. 그리고 허베이성의 남부·동부와 북부 간 이동시 베이징을 통과해야 한다. 이런 요인 하에서, 수많은 베이징 통과 차량이 베이징에 교통압력과 대기오염을 초래하고 있다.
- 수도지구 순환고속도로의 허베이성 전구간이 개통되면 이런 교통 및 환경 문제가 완화될 수 있고, 베이징시와 주변 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자원의 통합과 우세 보완에 유리하며, 징진지(京津冀) 도시군의 발전을 이끌고, 지역경제의 결합력을 추진하며, 징진지지역의 경제사회협력발전을 심화하고, 환(環)수도지구의 지역경쟁력과 자원환경수용 능력과 문화 영향력을 제고하고, 징진지 3지구의 협동발전을 광범위하고도 깊이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 2. 랴오닝성, “13차 5개년계획(2016–2020)” 실시

- 2016년 1월 30일 12기 랴오닝성 인민대표대회 6차 회의에서의 심의 통과된 “13차 5개년계획(2016–2020)” 강요는 총 15개 장(章)으로 구성되었다. 이 계획은 “2020

년까지 전면적인 소강(小康)사회로의 진입”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랴오닝성은 경제발전의 신상태(新常态)를 파악하여 인도하고, 4개 구동(驅動: 혁신, 개혁, 시장, 개방)을 동시에 추진하고, 6개 신(新) 경제성장점을 육성하며, 발전의 전면성·협력성·지속성을 제고시킨다.

“강요(綱要)”는 13차 5개년계획(2016-2020) 기간 말기 랴오닝성이 체제 및 기제의 중점을 달성하고, 경제구조를 최적화 시키며, 혁신창업의 성과를 현저하게 증가시키고, 민생사회를 달성한 구(舊) 공업기지가 진흥발전 선행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 경제발전정책

경제발전 수준은 지속적인 중고속 성장을 유지한다. 균형성·포용성·지속성을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지역총생산액 2015년 2조 9천 위안에서 2020년 4조 위안으로 성장, 연평균 성장률 6.6% 유지한다.

그러나 2016년 랴오닝성의 경제 성장률은 전국에서 유일한 마이너스 성장 지역이다.

도시화 비중을 보면, 거주 인구기준 도시화율이 2015년 67.2%에서 2020년 72%로 증가하고 호적 인구기준 도시화율이 2015년 57.3%에서 2020년 65%로 증가할 전망이다.

#### ● 자원환경정책

자원환경정책은 2020년까지 주요 오염물질 배출량을 국가지정 수준으로 줄이고, 지표수질 수준에서 Ⅲ급 이상 비중을 2015년 44.2%에서 2020년 51.2%로 늘리고, 산림복개율을 40.9%에서 42%로 높일 계획이다.

#### ● 민생복지정책

민생복지정책은 농촌거주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을 2015년 1.2만 위안에서 2020년 1.6만 위안으로, 도시거주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을 2015년 3.1만 위안에서 2020년 4.3만 위안으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또한, 5년 동안 도시 누적 신규취업자를 220만 명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표 8〉 구이저우성과 한국 간 인적 교류 현황

유형	지표	2015년	2020년	연평균 성장률(%)
경제발전	지역총생산(억 위안)	28700	39500	6.6 이상
	거주 주민 도시화율(%)	67.4	72	
	호적 주민 도시화율(%)	57.3	65	
자원환경	지표수 Ⅲ급 이상 비중(%)	44.2		42
	지표수 V급 비중(%)	3.5		1.16
	산림률(%)	40.9		42
	산림축적량(억m <sup>3</sup> )	3.06		3.41
민생복지	농촌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위안)	12057	16600	6.6 이상
	도시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위안)	31126	42800	6.6 이상
	농촌 빈곤퇴치 인구(만명)	-		81*
	도시 신규 취업자(만명)	-		200*
	도시 판자촌 개조(만채)	-		30*

주: \* 누적값

자료: 遼寧省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三個五年規劃綱要

### 3. 장쑤성, “13차 5개년계획(2016-2020)” 실시

- 2016년 1월 25일 12기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4차 회의에서의 심의 통과한 “13차 5개년계획(2016-2020)” 강요는 총 12개 편(篇), 42개 장(章)으로 구성된다.

이 계획은 2020년까지 소강(小康)사회로의 진입 목표달성을 위해, 혁신발전전략, 인재육성전략, 지역균형발전전략, 경제국제화전략, 지속발전전략, 민생공유전략 등 6대 전략을 추진을 통해서, 경제력이 강하고, 주민소득이 높고, 생태환경이 아름답고, 사회문명 수준이 높은 “새로운 장쑤성 건설”을 하위 실천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 **경제발전정책**

경제발전정책은 지속적인 중고속 성장 목표를 세우고 있다. 2020년 지역총생산과 도농 1인당 소득 수준을 2010년대비 두 배 증가로 설정했다. 지역총생산액은 2020년에 10조억 위안으로 연평균 7.5% 성장률을 유지한다. 자주혁신능력은 현저히 증강시키고 자주혁신평가 지표 수준은 혁신형 국가의 중급 이상으로 유지한다. 전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산업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쑤난(蘇南)국가급혁신시범에서

중대한 성과를 취득한다. 장쑤성 과학기술연구비의 지역총생산 비중을 2020년까지 2.8%로 제고시킨다.

● **자원환경정책**

자원환경정책은 2020년까지 주요 오염물질 배출량을 국가 지정 수준으로 높이고, 녹색에너지 사용 비중을 2020년까지 10%로 높인다. 대기 수준 II급 이상 비중을 2020년 72%로 늘리고, 신규 건설용지와 농경지의 보유량을 국가 지정 수준으로 유지한다.

● **민생복지정책**

도농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을 2020년 4.2만 위안으로 증가시키고 도시신규 취업자 500만명, 실업률 4% 이하로 유지하고 농촌 빈곤퇴치 인구규모 300만명을 달성하고, 도농 간에 공공서비스시설 균형을 실현한다.

〈표 8〉 구이저우성과 한국 간 인적 교류 현황

구분	지표	2020년	연평균 성장률(%)
경제	지역총생산(만억 위안)	약 10	약 7.5%
	호적주민 도시화율(%)	67	
	노동생산율(%)	18.5	
	과학기술 연구비 비중(%)	약 2.8	
	서비스업 비중(%)	약 53	
	현대 농업 발전 수준(%)	90 이상	
환경	지표수 III급 이상 비중(%)	70.2	
	지표수 V급 비중(%)	0	
	산림률(%)	24	
	산림축적량(억m³)	1	
민생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위안)	약 4.2	약 7.5
	농촌 빈곤퇴치 인구(만명)	300*	
	도시 신규 취업자(만명)	500*	
	도시 실업률(%)	4 이하	

주: \* 누적값

자료: 江蘇省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三個五年規劃綱要

## 4. 헤이룽장성, 유전자 변형 농작물 금지

- 2016년 12월 16일 개정된 헤이룽장성 식품안전조례에 따르면 성내(省内) 옥수수·벼·콩 등 농작물의 재배, 생산, 가공, 판매와 유전자 변형 성분을 보유한 식용 농산품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 이 조례는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림 2〉 유전자 변형 관련 삽화

출처: 百度百科

- 헤이룽장성은 중국의 농업대성(農業大省)으로서 식량생산량이 다년간 중국 성급(省級)행정지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경제사회의 발전과 생활수준의 제고에 따라서 국민들은 식품안전에 대해 갈수록 관심을 가지고 있다. 헤이룽장성은 녹색식품산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양곡창고에서 녹색양곡창고, 녹색채소밭, 녹색부엌으로 관점을 전환하고 있다.
- 헤이룽장성은 법률에 의하여 유전자 변형 식량 농작물의 재배를 금지하고 생태발전 공간을 보호하고 원초적으로 식품 안전을 보증하고 있다. 또한, 헤이룽장성의 한지(寒地), 검은 흙과 식물의 다양성 등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중요하다.
- 2016년 4월 농업부 과학기술교육사(科技教育司) 사장(司長: 국장급)인 라오시위안(廖西元)은 “중국의 유전자변형기술 보급이 비식용, 간접식용, 직접식용의 노선으로 나뉘는데, 우선은 비식용 경제작물을 발전시키고, 두 번째로 사료작물과 가공 원재료작물이고, 그 다음으로는 식용작물이고, 마지막으로 식량작물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 현재 중국중앙정부는 유전자 변형 목화솜과 파파야 등 작물의 생산사용안전증명서와 콩·옥수수·유채·목화·사탕무의 수입안전증명서를 승인·발급하고 있다. 농업부는 기존의 유전자 변형 콩·옥수수·벼의 연구 개발 현황과 산업수요에 근거하여 상업화 재배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

## 5. 산둥성 원당, 서양인삼 기지 구축

- 산둥성 웨이하이시(威海市) 원당구(文登區)는 중국의 최대 서양인삼 생산지이며 2015년 중국 브랜드 가치 순위에서 원당 서양인삼이 3위에 올라있다. 1980년대 초기에 서양인삼(西洋參)을 재배하기 시작한 후에 현재 서양인삼 재배면적이 5만ha에 달하며 매년 수확면적이 약 1.1만ha 이고 생산량이 약 5500 톤으로써 중국 전국 총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 원당구는 산둥반도의 동쪽에 위치한다. 여름이 덥지 않고 겨울도 춥지 않으며 무상(無霜) 기간이 길어서 독특한 기후와 지리위치를 보유하고 있고, 서양인삼의 생장에 적합하고 품질이 우수하다. 검사보고서에 따르면, 원당산 서양인삼은 다른 지역의 서양인삼보다 셀레늄과 사포닌의 보유량이 높다. 원당 서양인삼은 2011년 국가지리표지 농산품 등재 보호를 취득했고 2012년 농업부에서 발표한 “2012년 가장 영향력이 있는 중국 지역 농산품 공용(公用) 브랜드 100개”중 하나가 됐고 2015년에는 중국 “지리표지증명상표(地理標志証明商標)” 등록에 성공했다.
- 최근 수년간 원당구는 인삼의 재배부터 가공까지 점진적으로 기술을 향상시켰다. 수삼은 한 근에 수십 위안인데, 이를 건조시키고 얇게 자름으로써 수백 위안에 판매할 수 있다. 11,000여 가구인 인삼재배 종사자는 27개 서양인삼 협동조합을 형성하고 30여개 서양인삼 가공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 원당인삼의 표준화 재배는 품질보장을 위한 기초 고리이다. 새로운 인삼막을 통일하는 기준으로서 인삼막의 높이는 2.5m이고, 너비는 2m이다. 표준화는 기계화 작업 관리를 편하게 하고, 환기를 촉진시키고, 병균 유발 확률을 감소시

키고, 직사광선을 피하도록 해, 생산량을 과거에 비해 20%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서양인삼의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이 기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농약 잔류물의 예방과 제한 문제도 인삼 품질의 결정적인 요인이다. 적극적인 프로바이오틱을 보유한 생물비료를 보급하는 것 외에 재배하기 전 전면적인 농약 잔류물의 예방과 규제를 실시한다.

파종할 인삼 밭에 먼저 농약과 중금속의 잔류 검사를 해야 하고 관련 기준에 도달하도록 한다. 지금까지 원딩구는 서양인삼의 무공해 생산을 실현했으며 이 중 서양인삼 녹색인증(綠色認證)기지 면적은 이미 8,000ha를 초과했다.

- 2015년부터 매년 10월에 원딩구는 “서양인삼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고 서양인삼 산업 전문가, 가공기업, 바이어와 인삼 종사자 간 교류, 전시회와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 2016년 10월 서양인삼 거래 센터가 공식적으로 설립됐으며 건축면적이 11,000km<sup>2</sup>이고, 주로 기술육성교육구, 표준화 재배생산시범구, 서양인삼 투입품질감독구, 전자상거래구, 중계거래구, 서양인삼 검사구와 서양인삼문화 전시구 등 7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 또한, 전자상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원딩구는 농촌 전자상거래 서비스 시범프로젝트를 구축하고자 한다. 지역 내 10개 농촌 전자상거래 시범서비스제공점을 설립하고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해 혁신적인 농촌 유통 프로젝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림 3〉 원딩 서양인삼 수확(좌)과 파종(우)

출처: 百度百科

참고  
문헌

- 遼寧省人民政府(2016), 遼寧省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三個五年規劃綱要.
- 江蘇省人民政府(2016), 江蘇省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三個五年規劃綱要.
- 2016.12.6.新華網. “密涿高速河北段通車北京大外環河北段全線貫通”. ([http://www.he.xinhuanet.com/jujiao/20161206/3564861\\_c.html](http://www.he.xinhuanet.com/jujiao/20161206/3564861_c.html))
- 2016.12.6.中國經濟網. “首都地區環線高速公路河北段(替代路線)全線貫通”. ([http://www.ce.cn/xwzx/gnsz/gdxw/201612/06/t20161206\\_18438777.shtml](http://www.ce.cn/xwzx/gnsz/gdxw/201612/06/t20161206_18438777.shtml))
- 2016.12.16.中國新聞網. “中國農業大省黑龍江明年5月全面禁止轉基因作物”. (<http://www.chinanews.com/sh/2016/12-16/8096125.shtml>)
- 2016.12.16.新華社. “黑龍江明年將依法禁止種植轉基因糧食作物”.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6-12/16/c\\_1120134366.htm](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6-12/16/c_1120134366.htm))
- 2016.12.19.人民日報海外版. “‘中國好參’ 出文登”. ([http://paper.people.com.cn/rmrbhwb/html/2016-12/19/content\\_1736890.htm](http://paper.people.com.cn/rmrbhwb/html/2016-12/19/content_1736890.htm))

현대중국의 이해

# 현대중국의 이해

## 4. 시안사변과 제2차 국공합작

박인성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장

## 4. 시안사변과 제2차 국공합작

- 1936년 12월에 발생한 “시안(西安) 사변”은 국민당 동북군 총사령관 장쉐량(張學良)과 서북군(제 17로군)의 총사령관 양후청(楊虎城)이 당시 국민정부 최고 지도자인 국방위원장 장제스(蔣介石)를 무력으로 구금하고, 당시 장제스가 강고하게 밀어부치던 “외적을 물리치기 전에 필히 우선 내부를 안정시켜야 한다(攘外必先安內)”는 정책을 중지하고, “내전 중지, 일치 항일”을 요구한 병간(兵諫) 사건이다. 그 발생 일자가 12월 12일이란 연유로 “쌍12사변(雙十二事變)”이라고도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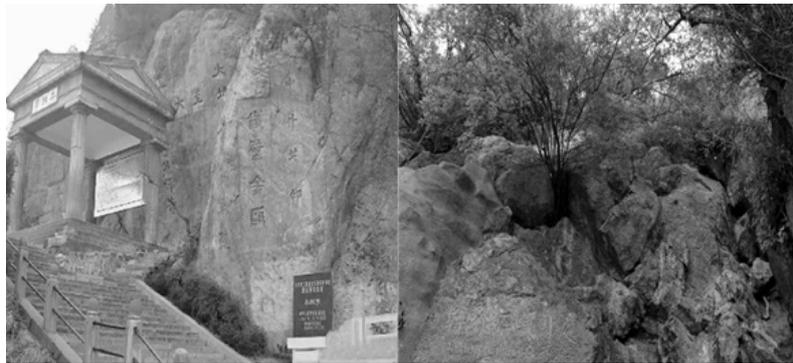
〈그림 1〉 시안사변 당사자: 장쉐량(좌), 양후청(중)과 장제스(우)

당시 중공의 상황은 중앙 홍군이 중공중앙의 근거지인 장시성(江西省) 루이진(瑞金)에서 퇴각한 후, 1년여 기간 동안 추격해 오는 국민당 부대와 지방 군벌군대와의 전투, 험난한 지형과 기후 등을 극복하고 천신만고 끝에 산시성(陝西省) 북부 산악지구인 우치진(鳴起鎭)에 도달(1935년 10월)후 “장정(長征)”에서의 입은 병력 손실 등을 보충하면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던 시기였고, 장제스는 중공 홍군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한 대규모 “공비 토벌”을 추진하고 있던 시기였다.

당시 중공의 입장은 객관적 전력이 국민당과 맞서기엔 차이가 너무 컸고, 장정을 마친 직후 서북지구에 근거지를 구축하며 전력을 보충 및 재정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으므로, 국민당과 장쉐량의 동북군과 양후청의 서북군을 포함한 지방 군벌들에게 “내전 중지, 일치 항일”을 설득하는 공작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따라서 시안사변의 발생과 평화적 수습은 중공에게 “내전 중지, 일치 항일”을 실현하고 제2차 국공합작과 항일통일전선 국면을 형성하면서, 기사회생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었다고 할 수 있다.

## 1) 시안사변의 발생 및 경과

- 1936년 12월 12일 새벽 3시 반, 양귀비가 목욕했다는 사연으로 유명한 산시성(陝西省) 시안(西安)시 교외 화칭즈(華清池) 별장에서 자고 있던 장제스(蔣介石)는 방 밖에서 나는 총성과 소란소리에 잠에서 깬다. 건물 밖에서는 장쉐량(張學良) 휘하의 동북군 기병사 사단장 바이평상(白鳳翔)이 장제스의 경비대와 경호원을 제압하고 있었다. 변란이 일어났음을 직감한 장제스는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채로 침실 창문으로 나와 등에 찰과상을 입은 채로 화칭즈 별장 뒤의 리산(驪山)으로 달아나 산중턱의 바위 뒤에 숨었으나, 뒤 아온 동북군 소속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끌려가 시안시내 동북군 장쉐량의 경호부대내에 구금되었다.



〈그림 2〉 시안사변 발생장소-리산

출처: 百度圖片

장제스 체포 및 구금 작전은 장쉐량(張學良)의 부하인 동북군 기병사 사단장 바이평상(白鳳翔)이 수행했다. 바이평상은 일전에 국민당파인 후종난(胡宗南)부대와 합동으로 “공비 토벌”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암호표시와 인식을 혼동한 양측 사병의 실수로 아군간에 벌어진 전투에서 후종난 부대에 궤멸상태의 심각한 손실을 입혔고, 사건 보고를 받고 대노한 장제스가 장쉐량에게 바이평상을 총살하라고 지시했으나, 바이를 아끼던 장쉐량이 바이를 자신의 공관 안에 은닉하고 보호해 준 적이 있었다.

장쉐량을 포함한 동북군 장병들은 일제의 만주침략으로 고향인 만주에서 퇴각해 서북지구에 와 있는 연유로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컸다. 바이평상은 상기한 연유까지 겹쳐서, “내부의 공산당부터 소탕하고 난후에 일본과 싸우겠다”고 주장하는 장제스에 대한 반감이 더욱 컸다.

한편, 시안(西安) 시내에서는 양후청(楊虎城) 휘하의 서북군(제 17로군)이 국민당 중앙헌

병단, 별동대 등 시안 시내 국민당 중앙군 세력과 산시성(陝西省) 공안국 등의 무장을 해체하고, 공항과 기차역, 우체국 등 요충시설을 장악하고, 당시 산시성(陝西省) 주석 샤오리즈(邵力子)를 포함하여, 천청(陳誠), 장딩윈(蔣鼎文), 천타오위엔(陳調元), 웨이리황(衛立煌), 주샤오량(朱紹良) 등 장제스를 수행하고 시안에 와 있던 10여명의 국민당 군부 및 정부내 주요 요원들을 체포하였고, 이 과정에서 샤오위엔충(邵元冲) 등 몇 명은 서북군 장병들에게 맞아 죽었다.

- 장쉐량(張學良)과 양후청(楊虎城)은 1936년 12월 12일 초기행동 완료 후에, 전국을 향해 거사 동기는 완전히 항일구국이고, 장제스의 반성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구국을 위한 8개항의 주장(救國八項主張)”을 발표했다.
  - ①난징(南京)정부 개편하여 각당 각파를 모두 수용하고 공동으로 구국의 책임을 진다.
  - ②모든 내전 중지.
  - ③상하이에서 체포된 애국지도자 즉각 석방.
  - ④전국의 모든 정치범 석방.
  - ⑤민중애국운동 개방.
  - ⑥인민집회결사와 일체의 정치자유 보장.
  - ⑦손중산총리의 유지(遺誌) 준수 실천.
  - ⑧구국회의(救國會議) 즉각 개최.



〈그림 3〉 시안사변 관련 신문

출처: 百度圖片

- 시안사변의 발생은 중국 국내는 물론이고 전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세계 주요 국가와 중국 국내의 각 파벌과 세력은 자신의 이익에서 출발하여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반응을 보였다.

일본은 이 기회를 이용해 중국내에 내전을 확대하면서 국민당 정부내의 친일파를 지원하고자 했다. 따라서 난징(南京)정부에 시안에 토벌군을 보낼 것을 적극 권유하면서 일본도 군사원조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당시에 독일에서 신병치료차 요양중이던 왕징웨이(汪精衛)를 귀국시켜 국민당 정부내의 친일파들을 조직토록 했다.

영국과 미국 등은, 만일 장제스가 살해된다면, 친일파가 국민정부를 주도하면서, 자신들의 중국 내에서의 이익이 침해받게 될 것을 우려했으므로, 시안 측과 난징 국민당 정부측 쌍방이 타협을 통해서 장제스를 석방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달라는 입장을 취했다.

소련 공산당은 중국정부의 항일을 지지하며 평화적 해결을 희망한다고 표시했다가, 또 한편으로는 스탈린의 잘못된 상황판단과 지시를 받은 후에는 장쉐량과 양후청이 일본의 선동에 의해 시안사변을 발동했다고 비난하는 등 모순된 태도를 보이며 갈광질광했다. 단, 이는 그해(1936년) 8월 15일에, 소련 공산당이 주도하는 국제공산당(共產國際: 코민테른)이 중공 중앙에 보낸 전문을 통해서, “장제스와 일본 침략자를 동등하게 보는 것은 맞지 않다”, “일본 침략자에 반대하면서, 또한 동시에 장제스에 반대할 수 없다”, “우리는 중공의 서남부 조직과 무장 역량의 반(反)장제스 행동과 성명은 착오라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 시안사변에 대한 각국의 서로 다른 대응 태도가 난징의 국민정부내부에도 반영되어 친일파와 영미파가 대립했다.

군정부장 허잉친(何應欽)을 대표로 하는 친일파는 시안을 무력 토벌하고, 시안을 폭격하자고 주장하면서, 대규모 내전으로 확대시키면서 장제스를 제거하고 자신이 그 대신 권력을 장악하고자 했다. 시안에서 사변이 발생한 지 4일 후인 1936년 12월 16일에 국민당 중앙정치회의는 허잉친을 반란군 토벌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장제스의 부인인 송메이링(宋美齡)과 송즈윈(宋子文) 남매를 대표로 하는 영미파는 장제스의 난징정부를 지키기 위해 장제스 구출과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다. 그들은 영국 국적의 기자 출신인 도널드(Donald William Henry)에게 시안으로 가서 상황을 탐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널드는 이전에 장쉐량의 고문 역할을 한 적이 있었고, 시안사변 발생 당시에는 장제스의 정치고문이었다.



〈그림 4〉 송메이링(좌)과 허잉친(우)

출처: 百度圖片

평위상(馮玉祥) 등 항일민주세력도 평화적 해결을 적극 주장했고 내전을 다시 발생시키자는 데에 반대했다.

기타 지방의 실력 과별중 대다수는 평화적 해결을 지지했으나, 소수는 무력으로 시안을 토벌하자고 주장했다.

장쉐량 휘하의 동북군과 양후청 휘하의 서북군 내의 다수 장교들은 장제스를 총살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당 중앙 정치회의가 개최된 12월 16일에는 시안 시내 각계 인민 10만여명이 모여 “장쉐량, 양후청 구국선언지지” 선언을 발표하고, 장제스를 죽이라고 요구했다.

- 산시성(陝西省) 북부에 근거지를 두고 있던 중공 홍군의 간부들과 병사들, 그리고 근거지 관할하의 인민 대다수도 장제스를 엄격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다시 내전이 발발하고 그것이 항일전쟁과 중화 민족의 운명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 2) 시안사변의 배경

### ● 9.18 사변

1931년 9월 18일, 일본관동군이 중국 동북 만주지역 전역을 점령하고, 청왕조의 폐위황제 푸이(溥儀)를 내세워 만주괴뢰정권을 설립했다. 이로써, 중일간 민족모순이 중국사회의 주요 모순이 되었고, 중국은 항일전쟁의 국부전쟁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

### ● 중공중앙 홍군, 산시성(陝西省) 북부에 도착

1935년 가을, 중공의 공농홍군(工農紅軍)이 이른바 “2만5천리 장정”을 마치고 산시 북부(陝北) 혁명근거지 바오안현(保安縣) 우치진(吳起鎮)에 도착하여, 이곳의 서북 홍군과 결합했다.

장제스는 중공 홍군이 기사회생할 수도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의 사태 진전을 극도로 경계했다.



〈그림 5〉 9.18 사변(좌)과 홍군 혁명근거지(우)

출처: 百度圖片

### ● 12·9 운동

1935년 12월 9일에 중공은 베이핑(北平)에서 대규모 대학생 시위를 조직하고, “내전중지”와 “일본제국주의 타도”를 주장하여, 전국 민중의 지지를 끌어내고, 전국 인민의 항일열정을 고취시켜, “외적을 치기 전에 필히 내부를 안정시킨다(攘外必先安內)”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던 장제스 국민정부에 거대한 압력을 주었다.

### ● 중공, 항일통일전선정책 확립

1935년 8월 1일, 중공의 주(駐) 공산국제(코민테른) 대표단 왕밍(王明) 등이 공산국제회의 정신의 요구에 의거하여 중공중앙 명의로 “항일구국을 위한 전체동포에 고하는 글”을 발표하고, 항일민족통일전선의 기본내용을 제시했다. 8월 15일에는 공산국제가 중공에 전문을 보내 중공과 장제스가 공동항일을 위한 평화회담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 1935년 12월 17일, 중공중앙의 근거지인 와야오바오(瓦窯堡) 회의에서 항일민족통일전선정책을 확립했고, 1936년 1월에는 마오쩌둥(毛澤東), 저우언라이(周恩來), 펑더화이(彭德懷) 등이 연명한 “홍군은 동북군과 연합항일을 원한다”는 성명서를 동북군 전체 장병을 향해 발표했고, 1936년 2월에는 중공이 동쪽 방향으로 항일전쟁을 시작한다고 선포했다.



〈그림 6〉 12.9 운동(좌)과 와야오바오회의(우)

출처: 百度圖片

● 양광사변(兩廣事變)

1936년 6월 1일, 천지탕(陳濟棠)과 리종런(李宗仁)이 광저우에서 전문 발표를 통해서, 9.18사변후 일본군의 중국 토지 유린을 통렬히 비난하고, 부대를 인솔하고 북상하여 실지 회복을 위한 항일전쟁 시작을 결정했다. 그러나 얼마후에 광동의 고위 장교들이 난징 국민당정부에 투항했고, 이로 인해 천지탕 부대는 와해되었고, 리종런도 부득불 장제스에게 귀순했다.

양광사변을 평화롭게 해결한 후, 장제스는 남쪽에서 발생한 이 사변을 토벌하기 위해 비축해 놓 중양사단을 모두 북쪽으로 돌려서 “공비토벌”에 투입하고, 장쉐량(張學良)의 동북군을 다른 곳으로 전출시킬 계획을 추진했다. 그러나 자신감이 과하여 소수의 문관과 무관만 대동하고 비행기편으로 시안(西安)으로 간 결과, 시안사변이 발생했다.

● 1935년 9월 20일, 장제스가 시안(西安)에 서북 공비토벌(剿匪) 총사령부를 설립하고, 동북군을 산시성(陝西省)과 간수성(甘肅省)에 배치하고 공비토벌 임무를 부여했으나, 동북군은 수차례 홍군과의 전투에서 연이어 패배했다.

1935년 10월 1일, 라오산(勞山) 전투에서 동북군 왕이저(王以哲) 휘하의 동북군 67군 110사단 2개 단(團)과 사단부대가 섬멸되었고, 사단장 허리중(何立中)은 전사하고, 단장 페이환차이(裴煥彩)는 생포되었다.

1935년 11월 22일, 즈뤄진(直羅鎮) 전투중 중공 홍군은 800여명 사상자를 내고, 국민당 동북군 정예 109사단 6000여명 사병을 섬멸 또는 생포했다. 이 전투의 패배가 장제스가 직접 “공비토벌” 전쟁을 독려하러 시안에 오게 된 계기가 되었다.

- 장쉐량과 중공의 비밀접촉

1936년 4월 9일에 장쉐량(張學良)이 비행기를 조종하여 옌안(延安)에 가서 저우언라이(周恩來)를 만났고, 1936년 9월에는 동북군과 중공중앙간에 “항일구국협정”을 정식 체결했다.

이후 중공은 저우언라이, 예젠잉(葉劍英) 등을 통해 동북군내에 접촉통로를 구축 유지해 왔다.

- 항일전쟁 수행을 둘러싼 장제스와 장쉐량의 언쟁

1936년 10월 22일, 장제스(蔣介石)가 난징(南京)에서 시안으로 와서, 장쉐량(張學良)에게 “공비토벌”을 명했으나, 장쉐량은 반대의사와 내전중지와 일치항일 의견을 표시했고, 장제스가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두사람은 언쟁을 벌였다.

1936년 10월 29일, 뤼양(洛陽) 장제스의 생일 축하연에서 장쉐량이 장제스에게 공산당과 연합 항일을 권했으나 장제스에게 거절당했다. 장제스는 장쉐량의 항일 주장을 단호히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쉐량에게 “공비토벌”을 강력하게 명령하고, 그렇지 않을거면 장쉐량의 부대를 동쪽으로 철수시키라고 했다. 11월 27일에 장쉐량이 장제스에게 다시 항일 전쟁을 청하는 글을 상소했으나 또 다시 거절 당했다.

12월 7일, 장쉐량이 시안에 와서 화칭즈(華清池)에 묵고 있는 장제스를 찾아가 또 다시 “내전 중지, 일치항일”을 고간(苦諫)했으나 장제스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장쉐량을 심하게 꾸짖었다.

- 1936년 12월 2일, 장쉐량이 뤼양(洛陽)에 온 장제스를 찾아가 만나서 항일구국회 7군지를 석방하라고 요청했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부하들이 불안정 상태이니 국방위원장인 장제스가 시안에 와서 훈화해 달라고 요청했고, 장제스가 이에 동의했다.

1936년 12월 4일, 장제스가 “공비토벌” 독려차 시안에 왔고, 12월 9일에는 장제스가 산시성(陝西省) 정부 주석 샤오리즈(邵力子)에게 서신을 보내, 장쉐량, 양후청에게 부여한 “공비토벌(剿共)”병권을 장딩윈(蔣鼎文)에게 넘기기로 했다는 뉴스를 “대공보(大公報)”에 발표토록 지시했다.

- 1936년 12월 10일, 장쉐량이 바이펑상(白鳳翔)을 데리고 장제스를 만났다, 장제스는 회의를 개최하고, 제6차 포위토벌(第六次圍剿) 계획을 정식 통과시키고 12월 12일 동원령을 선포한다고 결정했다.

1936년 12월 11일 저녁, 장제스(蔣介石)가 장쉐량(張學良), 양후청(楊虎城), 그리고 장딩원(蔣鼎文), 천청(陳誠), 주샤오량(朱紹良) 등과 만찬 중에 장딩원을 서북 공비토벌군 전방 총사령관으로, 웨이리황(衛立煌)을 서북 변방지구 4개 성(省) 지휘관으로 교체한다는 임명장을 읽고, 중앙군에게 동북군과 서북군의 공비토벌 임무를 접수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저녁 만찬장에서 나온 장쉐량과 양후청이 각각 동북군과 서북군(十七路軍) 고급장교들을 소집하고 12월 12일 새벽에 병간(兵諫)을 진행한다고 선포했다.

### 3) 시안사변의 평화적 해결

- 난징(南京)의 국민당 중앙은 사변이 발생한 1936년 12월 12일 당일 23시 30분에 중앙상무위원회와 중앙정치회의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토벌과 협상을 병행추진하기로 결정하고, 한편으로는 허잉친(何應欽)을 토벌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또 한편으로는 위여우런(於右任)을 산시성·간쑤성(陝甘) 선무대사(宣撫大使)로 임명했다.
- 장제스의 부인 쑹메이링(宋美齡)은 1936년 12월 12일 당일 상하이에서 소식을 들은 후, 이전에 장쉐량의 고문이었었고 당시에는 장제스의 정치고문이었던 영국 국적 호주 기자 출신 도날드(Donald William Henry)와 공상시(孔祥熙)와 대책을 의논하고, 도날드와 함께 시안으로 가기로 하고, 그날 밤에 도날드와 함께 상하이에서 난징으로 왔다.  
12월 13일 8시에, 쑹메이링이 장쉐량(張學良)에게 전보로 도날드가 시안으로 간다고 전했고, 도날드도 동시에 장쉐량에게 연락했다.
- 1936년 12월 16일, 국민당 정부가 장쉐량의 투항을 권고했으나 효과가 없자, 중국 각계에 전보를 보내 토벌을 요구하고, 정치위원회가 허잉친(何應欽)을 토벌군 총사령관으로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류즈(劉峙)를 토벌군 동로집단군(東路集團軍) 총사령관으로, 구주통(顧祝同)을 서로집단군(西路集團軍) 총사령관으로 하여, 각각 병력을 집결하고, 동서 양방향에서 동시에 시안으로 압력을 가했다. 공군은 시안 부근 도시들을 포격하면서 점차 시안쪽으로 폭격해 왔다.  
장쉐량은 구금중이던 장딩원(蔣鼎文)을 석방하여 뤼양(洛陽)으로 보내서, 국민당군에게

충돌이 격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잠시 군사행동을 중지해 달라는 뜻을 전하게 했다.

- 도날드의 노력으로, 12월 22일에 송메이링(宋美齡)과 송즈원(宋子文) 등이 장쉐량의 허가를 받고 시안으로 출발했다.

시안으로 가는 비행기안에서 송메이링이 권총을 도날드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다. “만일 반군이 나에게 어떠한 무례한 행동을 하면, 너는 이 총으로 즉각 나를 쏘아라”

송메이링(宋美齡)과 송즈원(宋子文) 남매와 도널드 등 일행이 시안공항에 도착하자 장쉐량과 양후청이 이들을 공항에서 영접했다. 비행기에서 내린 송메이링이 장쉐량에게, “장군, 이것이 내 물건인 데, 검사 안해도 되겠죠?” 라고 묻자, 장쉐량이 즉각 “부인, 어찌 감히, 어찌 감히!”라 답했다.

송메이링과 송즈원 남매는 장쉐량과 양후청과 회담 후, 장쉐량이 송메이링과 도날드를 데리고 장제스(蔣介石)와 만나게 해 주었다.

- 1936년 12월 23일, 쌍방은 장쉐량의 공관 서루(西樓) 2층에서 송즈원이 국민정부 대표로, 장쉐량, 양후청, 그리고 중공이 파견한 저우언라이(周恩來)가 시안(西安)측 대표로 참석하여 담판회의를 했고, 시안측은 6개 항의 주장을 제시했다.



〈그림 7〉 시안사변 담판회의의 장면

출처: 百度圖片

①내전 중지, 국민당군 통관(潼關) 밖으로 철수, ②난징정부 개각, 친일파 추출, 항일분자가 입, ③정치범 석방, 민주권리 보장, ④공산당 토벌 중지, 홍군과 연합 항일, ⑤각당과 각계 각군이 참여하는 구국회의 개최, ⑥항일을 지지하는 국가와 연합.

12월 24일, 장제스가 6항협약에 서명하고, “내전 중지와 연합항일” 주장을 접수했다.

중공중앙은 12월 24일 밤에 시안 측 협상대표의 일원으로 시안에 머물고 있던 저우언라이

(周恩來)에게 전보를 보내 장제스 석방 3개 조건 관철을 지시했다. ①국민당 중앙군 모두 우선 통관(潼關)에서 철수, ②난징정부와 장제스가 공개적인 정치문건으로 국내 평화를 선포하고, 과거를 묻지 말고, 백성과 함께 구국구회의 개최, ③정치범 부분적 석방 시작.

- 1936년 12월 26일, 장제스(蔣介石)가 장쉐량과 함께 난징(南京)에 도착했다. 이로써 시안사변은 평화적으로 해결되었다.

12월 25일 오후에 저우언라이가 다시 장쉐량에게 중공의 장제스 석방조건을 설득하려 했으나, 장쉐량은 이미 장제스와 비행기를 타고 뤼양(洛陽)으로 떠난 뒤였다. 시안(西安)을 떠나기 전에, 장쉐량은 서북군을 양후청의 지휘에 맡긴다는 친필명령을 남겼다.

- 시안사변 후, 동북군은 분해되고 와해되었고, 서북군(十七路軍)은 취소되었다.

장제스와 같이 난징으로 간 장쉐량은 공항에 내리자마자 체포되었고, 그후 장제스에게 연금된 상태로 대륙에서 타이완으로 옮겨 가면서 90세까지 연금상태로 있다가, 1990년 90세 생일 때 장제스의 아들 장징궈 총통 시절에 석방되었고, 1995년에 하와이로 가서 살다가 2001년 10월 14일, 101세로 생을 마쳤다.

양후청(楊虎城)은 사변 해결후 국외로 도피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을 전전하다 항일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홍콩을 통해 대륙에 들어오다가 국민당 특무에 체포되어, 장기 간 구금되어 있다가 1949년 9월 17일, 56세 나이에 충칭(重慶)에서 살해되었다.

#### 4) 시안사변의 역사적 의의

- 시안사변 발생과 평화적 해결은, 10년여 간 지속된 국민당과 공산당과의 내전을 기본적으로 끝내고, 제2차 국공합작과 일치항일(一致抗日)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항일민족통일전선 건립을 촉진시켰다.

동시에, 중공에게는 합법적으로 생존하고 한숨 돌리면서 전력을 보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시안사변을 평화적으로 해결한 후, 마오쩌둥(毛澤東)은 중공중앙 정치국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시안사변은 우리를 감옥에서 해방 시켜 주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이 사변의 영도자인 장쉐량과 양후청 두 장군에게 특별한 존중과 감격의 정을 품고 있다. 우리는 시안사변 기간중에 실제로 영도하는 역할과 지위를 획득했다.”

한편, 국민당 입장에서 보면, 시안사변은 장쉐량(張學良)이 9.18사변후 근거지인 만주에서 일본에 저항하지 않아서 전국인민의 비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선 공비토벌, 후 항일” 방침에 불만을 품은 중공의 대(對) 동북군 공작에 말려 들어서 저지른 우발적 행동이고, 이로 인하여 국민당 정부가 준비해 온 전면항일 행동개시 이전에 폭발하여 국민당의 항일전략을 중단시켰다. 또 한편으로는 중공에게 한숨 돌리고 기사회생(起死回生)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중공에게 항일전쟁 승리후 전면적인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게 해 주었다.

### 참고 문헌

- 아마코 사토시, 임상범옮김(2016), 『중화인민공화국사』, 일조각.  
 조관희(2013), 『중국현대사 강의』, 궁리.  
 현이섭(2012), 『중국지(상,하)』, 인카운터.  
 서진영(1992), 『중국혁명사』, 한울아카데미.  
 賈章旺(2012), 『毛澤東從韶山到中南海(下)』, 中國文史出版社.  
 中共中央黨史研究室(2011), 『中國共產黨歷史第一卷(1921-1949)上冊』, 中共黨史出版社.  
 李新(2011), 『中華民國史第8卷下冊』, 中華書局.  
 Ross Terrill, 胡爲雄외역(2009), 『Mao: A Biography毛澤東傳』, 中國人民大學出版社.  
 申伯純(2008), 『西安事變紀實』, 人民出版社.  
 楊奎松(2008), 『國民黨的聯共與反共』, 社會科學文獻出版社.  
 柯延主編(2004), 『毛澤東生平全記錄(上)』, 中央文獻出版社.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1996), 『毛澤東傳(上)』, 中央文獻出版社.  
 毛澤東著(1991), 『毛澤東選集第一卷』, 人民出版社.  
 何沁主編(1990), 『中國革命史』, 武漢大學出版社.

「충청중국포럼 소식」

제16회

중국의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환황해권 항만의 대응전략

## >> 제16회 충청중국포럼 개최 중국의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환황해권 항만의 대응전략

- 지난 11월 30일(수), 충남연구원 4층 회의실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동향분석실 이주호 실장의 “중국의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환황해권 항만의 대응전략”이란 주제 발표를 중심으로 제16회 충청중국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충남도 정책기획관 김성환 주무관, 태안군 기획감사실 명승식 대외협력팀장, 서산시 성장전략과 송진식 미래전략팀장과 한상필 주무관, 보령시 기획감사실 최철구 주무관, 아산시 자치행정과 석로태 주무관과 진의화 중국 광동성 동관시 공무원(아산시 파견 근무중), 논산시 전략기획실 최미연, 이금숙 주무관 등이 참석했다. 이주호 실장은 중국의 경제여건, 주요 산업의 전망 그리고 중국 경제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해 정리·분석하고 환황해권 항만의 제조업전략, 수출지역 다변화전략, 소비재 수출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 방안을 제시했다.



〈그림 1〉 이주호 실장 강연 모습

- 중국의 경기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내수회복 상태 지연과 외수 위축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중국의 GDP 성장률은 2008년 9.6%에서 2015년 6.9% 수준으로 하락했고 올해 경제성장률은 약 6.6%~6.8%로 전망됐다. 중국경제는 투자·제조업·수출 중심의 성장전략에서 소비·서비스업 중심의 성장구조로 이행하고 있다.

중국의 민간투자는 부문별로 급격히 위축되었다. 산업별로는 부동산 부문 투자와 자동차 부문 판매가 소폭 회복한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구조상 저축 집중 현상으로 지연되었던 소비는 향후 서비스업 및 도시화 확대 등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세계개혁, 투자확대, 서비스업 확대 등 내수 확대를 위한 조치가 가계저축을 소비로 전환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경기 악화 지속 등으로 수출 경기가 둔화되고 주요 수입국의 대(對)중국 수입증가율도 하락하고 있다. 2016년 6월까지 중국의 수출증가율과 수입증가율은 각각 -7.7%와 -10.2%이었고 2015년부터 수출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기업형태별로 보면, 외자기업, 민영기업 등 민간기업의 수출 비중이 국유기업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16년 2월부터 중국 정부는 서비스 무역뿐만 아니라 전방위적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제시했다.

- 2015년 중국 주요 산업의 경기사이클을 보면, 반도체, 도소매, 금융, 음식료, 제약 등 산업분야의 발전이 지속적인 호조를 보이고 반면 철강, 조선, 건설, 석탄 등 산업분야의 발전이 지속적인 부진을 보인다. 그리고 석유화학, 정유, 비철금속, 자동차, 가전/핸드폰 등 산업은 제품의 공급과잉과 수요부진, 경기둔화 등 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한다면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특히, 한국은 대중국 수출이 둔화하고, 대중국직접투자 기업의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으며, 아시아 신흥국 및 자원수출국, 선진국은 전반적인 회복세가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자료를 보면, 중국 경제성장률이 1% 하락할 때, 한국 경제성장률은 0.2~0.6% 둔화할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별로 파급효과를 보면, 중국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때 한국의 항공업, 전기 및 전자기업, 화학업 등의 산업은 큰 영향을 받으며, 반면 음식료품업 등 소비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중국의 투자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

물동량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중국의 석유, 석탄 및 화학, 금속, 건설 및 기계산업에 구조조정이 집중될 경우 한국에 경제 및 항만 물동량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측된다.

- 12차 5개년계획(2010-2015) 동안 중국은 국내외 시장 환경 악화에 대응하고 핵심 경쟁력과 제조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산업구조 조정을 실시했다.

2013년 1월 중국정부는 공업 업그레이드 계획 발표를 통해 “중점 업종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는데 자동차업, 철강업, 시멘트업과 선박업 등 9개 업종을 위주로 기업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2015년 10대 핵심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국제조 2025> 계획이 발표됐다. 10대 핵심산업은 주로 차세대 정보기술업, 로봇산업, 항공우주장비업, 해양장비 및 첨단기술선박업, 선진궤도교통설비업,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업, 전력소비업, 농업기계장비업, 신소재업, 바이오 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업이다.

- 중국의 경쟁여건 변화에 따른 환황해권 항만의 대응전략

첫째, 동아시아지역과 중앙아시아지역(이란 등)으로의 신행로 개척이 필요하다.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교역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환황해권 항만의 동남아시아 신규 항로 개발을 위한 마케팅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16년 5월, 한국과 이란 간 해운협정 및 항만개발에 대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는데, 교역 및 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양자 간 물류 운송루트 개설을 위한 다양한 진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임대료 수준을 재정비하고 자유무역지역 이용 면적의 탄력적 운영과 내륙 연계운송망의 조속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경제자유무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외자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었지만 국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무하며 항만지역은 국가 간 경쟁을 담당하는 곳으로 국가경쟁력 확보 및 제조업 육성 차원에서 항만구역은 규제지역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자유무역지역과 배후단지에 임대면적을 지정하여 입주기업을 공모하고 공모 신청 시 면적을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항만 인근 국도와 고속도로는 화물교통량 증가로 인해 상습 정체구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배후수송망 구축을 위해 도로 확장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재 수출지원을 위한 항만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시

설에 K-뷰티, K-패션, K-푸드 등을 연계한 대규모 한류박람회를 개최하고 바이어 및 고객들이 상품을 직접 관람하고 즉시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항만을 통해 수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망 소비재 제조기업에 대해 항만배후단지내 물류센터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가격경쟁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화장품, 전자제품 등의 인기 소비재 상품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항만배후단지내 보세창고 활용을 지원하고, 통관절차를 간소화 하여 효율적인 물품 반출을 통한 수출 원활화를 추구한다.

◆ 강연이 끝나고 진행된 토론에서는, 보령시 기획감사실 최철구 주무관이 제기한 보령시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쌀과 해삼 등을 비롯한 농수산품의 대중국 수출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과 방식을 통해서 진행해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 중국인의 소득이 향상되면서 해외 농수산품의 소비가 많아지는 추세 하에서 고급 농수산물 제품 생산과 제품의 안전성을 강화해야 하고 중국으로의 물류흐름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서산시와 논산시의 농수산물 판로 개발과 국제교류, 관광 등 분야에 대한 논의와 향후 시·군의 지역 활성화와 대(對)중국 수출과 교류 협력 방식에 대한 논의와 토론도 진행되었다.

◆ 제17회 충청중국포럼은 새해(2017년) 1월 18일(수) 오후 3시부터 충남연구원 4층 회의실에서 배제대학교 중국통상학과 고정식 교수님을 모시고 “중국 주식시장의 추세와 전망” 이란 주제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림 2〉 제16회 충청중국포럼 단체 사진

※ 문의 : 중국연구팀(041-840-1175, neong@cni.re.kr)



■ 중국동향과 진단 발간목록(2015.6~2016.12)

호수	발간월	주제
제1호	2015년 6월	육상 및 해상 신실크로드(一帶一路)건설과 중국의 국토발전축
제2호	2015년 7월	신상태 시대 중국경제와 충남의 대응과제
제3호	2015년 8·9월	징진지 지구 일체화 정책 추진 동향과 충남의 시사점(합본호)
제4호	2015년 10월	중국 삼농문제의 연원과 관련정책 동향
제5호	2015년 11·12월	산동성 남색경제 발전전략(합본호)
제6호	2016년 1·2월	중국 13차 5개년 계획의 성격과 주요 내용
제7호	2016년 3·4월	한중 FTA 발효가 충남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제8호	2016년 5·6월	방한 '요우커' 충남 유치전략
제9호	2016년 7·8월	중국 구이저우성의 현황과 충남의 대응전략
제10호	2016년 9·10월	환황해권시대 충남의 대(對)중국 전략
제11호	2016년 11·12월	중국내 한중산업단지의 설치 동향

※ 발간된 내용은 충남연구원 홈페이지([www.cni.re.kr](http://www.cni.re.kr))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